



배포 즉시

유틸리티(Utility)-성남시, H2Gen® 수소 실증·인증 프로젝트 체결

세계 선도 청정에너지 시장인 한국에서 경제적 산업 탈탄소화와 수소 혁신을 촉진할 “프런티어 코리아(Frontier Korea)” 기공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 대한민국 성남 – 2025년 10월 28일 –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경제적 산업 탈탄소화 기업 **유틸리티(Utility)**는, 자사의 독자적이면서 검증된 **H2Gen®** 기술 플랫폼의 상용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늘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함께 성남수질복원센터 내 **H2Gen 실증·인증 플랜트**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순환경제와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혁신을 이어온 도시로, 이번 프로젝트인 “프런티어 코리아(Frontier Korea)” 시설은 미국 외 지역에서 최초로 구축되는 실증·인증 거점이 된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가스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 수소경제 로드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다. 한국은 온실가스 저감과 폐기물 관리 고도화를 위해 유기성 폐기물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프런티어 코리아 프로젝트에 따라, 유틸리티는 연료전지급(FC-grade) 99.995% 이상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탄소(클린 카본)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운영하고, 생산 수소를 성남시 소재 E1 수소충전소에 공급하여 수소버스·트럭·승용차 등 중·대형 모빌리티에 활용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수소모빌리티 시장 중 하나로, 유틸리티는 H2Gen 기술의 잠재 수요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H2Gen은 유기성 폐기물의 혼기성 소화로 생성된 원료 바이오가스의 화학적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비전기식) 전기화학적 공정을 통해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H2Gen® 수소 생산기술의 **국내 인증**을 추진해 한국 내 다수 산업 부문으로의 **신속한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은 바이오가스,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H2Gen**의 핵심 타깃 시장이 풍부한 전략적 중점 국가다. 유틸리티는 최근 성남시에 **현지 법인 Utility Korea LLC**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에 따른 **적격 투자**도 완료했다.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하수처리의 역할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적 도약”이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자원순환, 청정에너지 인프라, 국제협력을 한층 진전시켜 성남시의 **ESG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틸리티와의 협력은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향한 지속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틸리티는 10 월 10 일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프런티어(Frontier)** 시설의 운전을 개시했으며, 다양한 원료가스에 대한 **장주기(24/7)** 연속 운전을 통해 **H2Gen®의 범용성과 산업 적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프런티어 코리아** 시설은 이 검증된 모듈형 플랜트의 동일(near-replica) 사양으로 구축된다.

유틸리티의 파커 믹스(Parker Meeks) 대표이사 사장(Chief Executive Officer & President)은 “**탈탄소화를 선도**해온 한국은 당사의 최우선 전략 시장”이라며, “특히 성남시의 과감한 결단과 협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H2Gen® 기술이 한국의 여러 산업 부문에서, 우선 중대형 모빌리티부터, 게임체인저급의 경제적 탈탄소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소개

About Utility Global

유틸리티(Utility)는 철강, 모빌리티, 정유, 석유화학, 상류부문(O&G) 등 산업 전반의 **경제적 산업 탈탄소화**를 구현하는 실용 해법을 제공한다. 회사의 혁신적 **H2Gen®** 기술은 산업 오프가스 및 바이오가스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독자적 전기화학 공정으로 현장(On-site)에서 용도별 고순도·저~음(負)



탄소집약도 수소를 물로부터 생산한다. 아울러 고농도 CO₂ 스트림을 함께 생성해 탄소포집(CCUS) 비용을 제거하거나 대폭 절감할 수 있다. H2Gen 시스템은 모듈식·스케일업 용이·운전 유연성을 갖추고, 초소형 설비 면적으로 기존 난감부(難減部, hard-to-abate) 자산에 무정지 통합이 가능하여 실질적·경제적 탈탄소화를 구현한다.

유틸리티는 **산업 탈탄소화 전문 사모투자사인 아라 파트너스(Ara Partners)**의 포트폴리오 기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utilityglobal.com**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About Ara Partners

아라 파트너스(Ara Partners)는 산업 탈탄소화에 초점을 둔 글로벌 사모·인프라 투자사로 2017년에 설립되었다. 아라는 산업·제조, 화학·소재, 에너지 효율·그린 연료, 식품·농업 분야 전반에서 실질적 감축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스케일업한다. 휴斯顿, 보스턴, 워싱턴 D.C., 더블린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23년 12월 제3호 사모펀드**에서 **28억 달러 이상의** 약정을 마감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운용자산(AUM)**은 약 **66억 달러**다. 자세한 내용은 **www.arapartners.com**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미디어 문의

수전 셀루라(Susan Cellura)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 유틸리티(Utility) | s.cellura@utilityglobal.com